

▪ 교회소식 ▪

**종교개혁기념주일** :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폐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폐제 찬양과 기도회가 열립니다.  
**원로나들이** : 4일(금) 여주로 원로나들이를 갑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추수감사절**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준비합시다. 오후에는 감사찬양제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등록** : 선린학교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용지는 1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차** : 다음 주일에는 선린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과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협** : 흥천 친환경 절임배추 주문예약을 받습니다. 절임배추10kg 21,000원, 무 한 다발(약 5개) 5,000원입니다. 배송일은 11월19일(토)/26일(토)입니다.  
**신앙실천** :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보고 바르게 바꾸어 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시 116:7-15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권미숙 권사

11월	1부 영접위원	최재욱 이수정
	1부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김인걸 권혁순 박상규 허신열 이은주 유경순 박경원
	2부 헌금위원	박흥재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박소현 이수정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다음 주 식당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주은경 박미연 이수자 이성범 박기영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교회학교교사  
 커피 판매 봉사 : 2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의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종교개혁기념주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499년 전 루터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루터는 왜곡된 종교적 권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릇된 옛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만을 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수장과 지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본인과 측근들의 부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근간이 흔들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진통을 통해 바른 나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3,14a ..... 인도자

▲ 교 독 문 ..... 104. 종교개혁주일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조항범 권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 다 함께

▲ 성경봉독 ..... 롬 6:17-23 .....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부찬양 ..... 오 기쁜 날 ..... 찬양대

우 우 우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날 구원했네 죄사하셨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구명자	권미숙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기성	이은정	김남종
오복순	김문주	김승현	김수진	김애경	김영호	김용태	박정숙	김정울	김재홍
최희영	김정린	김정민	이혜령	김종문	지명주	김준호	곽해자	김중현	김성규
김지윤	정영우	김진우	임미진	김해선	김훈동	유경순	문금석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재영	이현정	성지현	송인선	송정근	이소선	신정훈	이은미	오미숙
오슬기	오자영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근식
신영신	이미리	이왕준	송상경	이유선	이유진	이재삼	구정현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임영	정경례	장원호	박성희	정현선	조문규	진정숙	최미자	최숙
최은미	최진성	최영은	최현	최형균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한완식	임정자
허성호	진은혜	홍복선	홍성식	이유리					

### 감사헌금

강신철	이혜경	김양태	최원정	김영호	김유은	김해선	김향자	마인혁	박병구
방경선	변승호	손숙경	송남필	오승아	이은혜	이인웅	이정우	장윤지	임승동
백해숙	장승희	정윤성	서효린	정의도	조영순	최명은	최미선	최영민	최형서
추은총	홍소형	무명15							

### 녹색꿈헌금

권호연	김기석	김용길	최영혜	김정화	오자영	윤미경	윤수진	임선양	신현숙
정현선	정효진	무명5							

###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박해남 이왕준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 우두커니 나무

일주문 두리기둥처럼 거침없이 위로 솟구친 향나무 한 그루  
 이종문 시인이 그대는 왜 여기 우두커니 서 있는가 물으니  
 내가 왜 여기 우두커니 서 있는지 그대가 궁금해 하라고  
 여기 우두커니 서 있다고 대답한 바로 그 나무다  
 괜히 자옥산 기슭 옥산서원 뜰에 우두커니 서서  
 이종문을 궁금하게 한 멋대가리 있는 향나무에게 다가서서  
 거친 살결을 짚으며 오늘은 내가 묻는다  
 그대, 이 추운 겨울날 여기 우두커니 서서 무얼 하시는가 했더니  
 그냥 심심해서 하늘에 대고 글씨를 쓰고 있다며  
 이렇게 한 획 그어 올리는 데 한 사백 년쯤 걸렸다면  
 지금도 그어 올리는 중이니 말 같은 거 걸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대가 쓰고 있는 글자 대체 무슨 자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추운데 이종문보다 더 귀찮은 놈이 왔다면  
 똥을 곤(丨)자도 모르는 놈이 시인이랍시고 돌아다니느냐며

- 김선평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날 구원했네 죄사함 받았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날 구원했네 죄사하셨네  
 날 구원했네 죄사함 받았네 오 기쁜 날  
 날 가르치셨네 세상을 이기라  
 기쁘게 살리 날마다 날마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네 기쁜 날 아닌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네 기쁜 날

- 말씀 ..... **거룩함을 향한 순례**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 함께
- 2부찬양 ..... 585.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다 함께
-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 봉헌기도 .....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욕심을 따라 살며 죽음에 이르지 마십시오. 의를 따라 살아 생명에 이르십시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사십시오. 날마다의 삶이 거룩함을 향한 순례가 되도록 사십시오.
- 다함께: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의 종국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더러움과 추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을 자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 축복 ..... 김기석 목사

## ▪ 환경컬럼 ▪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청과교회교인이라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한번쯤은 더 들어보고 한번쯤은 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편의위주로 돌아가다 보면 순식간에 불필요한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나 음식물쓰레기는 조금만 무신경하게 생활하다 보면 먹은 만큼 생기기도 합니다.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 닿을 때마다 한 번씩 주의를 환기하여 몸에 밸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가장 처리가 곤란하다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은 대부분이 잘못된 음식문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 '손님상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음식을 많이 차려놓게 되고 먹지 않는 음식들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결문제보다 발생에 대하여 원천봉쇄 해야 합니다.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서 수입/유통/조리 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또한 연 1,78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 1)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온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냉장고 청소나 정리정돈을 한 달에 한 번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정리하는 날을 따로 정하고, 식품 목록과 보관한 날짜를 써 붙여 놓습니다. 식단 짜는 편리함은 물론 냉장고 사용이 아주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 2)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춰 조리합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두면 맛과 신선도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버리는 양도 많아지므로 식사량에 맞춰 조리합니다. 계량도구의 사용을 생활화하면 음식 재료의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음식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 덜어 남기지 않습니다.

한 톨의 쌀과 한 알의 감자가 어떻게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 생각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음식을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습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줍니다.

##### 4) 지나치게 짜거나 맵게 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염분은 15~20g입니다. 알맞은 염분 섭취량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 것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음식물을 남겨서 버리게 만드는 원인도 됩니다.

##### 5)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다른 쓰레기가 평균 15~20%나 섞여 있습니다. 애써서 따로 모은 음식물 쓰레기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 있으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처리비용으로 우리의 엄청난 세금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산과 강이 오염되고, 그것은 마침내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까지 오염시킵니다.

##### 6) 음식을 주문하기 전 메뉴판을 꼼꼼히 살핍니다.

주문할 음식에 어떤 반찬이 있고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살핍니다. 자기 취향과 식사량을 알면 정중히 대접받는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 7) 자신의 식사량을 미리 말해줍니다.

가정이나 급식에서 자신의 식사량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자기 식사량을 미리 알려서 과식하거나 먹다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 8)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합니다.

급식에서 손도 대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물은 엄청납니다. 남길 음식은 식사 전에 받지 않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보다 나은 음식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